

고창군 공공기관 청렴도 '우수'

2등급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각종 인·허가 등 5개 분야 대상 측정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종합청렴도 10점 만점에 8.05점으로 기초자치단체 군부 평균 7.58점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 82개 군부 중 종합청렴도 '2등급'으로 2년 연속 우수기관 평가를 받았다.

군은 해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올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8일 전했다.

외부청렴도의 경우 지난해 32위에서 15위로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업무경험이 있는 민원인들이 고창군의 청렴 수준을 높게 응답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청렴도 측정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 6월 30일까지 1년 동안 외부 청렴도와 내부청렴도 및 감점요인을 적용해 종합청렴도 점수를 산출한다.

외부청렴도는 해당기간 중 각종 인·허가, 공사관리 및 감독, 보조금 지원, 재·세정, 지도·점검 등 5개 분야의 측정대상 업무를 경험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측정한다.

내부청렴도는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와 온라인(스마트폰, e-mail) 조사를 병행해 실시했으며 부패사건 발생현황과 신뢰도 저해행위 등을 감점으로 적용해 측정했다.

박우정 군수는 민선 6기 들어 '청렴한 공직문화조성'을 공약으로 내걸고 투명한 행정처리와 깨끗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열린 군정 추진에 힘써 왔다.

군민과 공직자의 신뢰와 애정을 바탕으로 한 군정추진을 위해 올 6월 민원처리 경험자 2500여명에게 군수 서한문을 발송해 청렴한 군정을 펼

는 것이 군민의 행복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공직자와 함께 청렴한 고창, 행복한 군민을 위한 행정을 구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또한 지난 9월 28일 시행한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인 오필환 교수를 초빙해 '부정청탁금지법과 청렴문화 형성'을 주제로 700여 공직자를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조직 구성원 전체가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동참했다.

아울러 '내부 익명 신고시스템'을 도입해 조직 내 자정기능을 부여해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한 청렴조직으로의 발전을 도모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군정구현에 앞장서고자 노력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순창군이 적성면 체계산에 국내 최대규모 구름다리 설치로 중심이었던 섬진강 뷰라인 조성사업 국가예산을 최종 확보함에 따라 500만 관광객 유치사업 성공이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순창군, 섬진강 뷰라인 조성사업 최종 확보

구름다리 연결 6시간 코스 등산로 마련 등

순창군이 적성면 체계산에 국내 최대규모 구름다리 설치를 중심으로한 섬진강 뷰라인 조성사업 국가예산을 최종 확보함에 따라 500만 관광객 유치사업 성공이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섬진강 뷰라인 연결사업은 순창군 적성면 괴정리에 위치한 체계산 중턱 60~65m지점에서 270m 길이 구름다리와 산책로, 전망대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내년에 공사에 착공해 2018년까지 국비 31억을 포함해 총 62

억원이 투자된다.

현재 체계산은 동서로 순창과 남원을 잇는 국도24호선이 있어 남쪽으로 유등~적성을 거쳐 일명 적성체계산, 북쪽으로는 적성~동계를 거쳐 남원체계산으로 분단되어 현재 3시간 코스 적성체계산만 이용되고 있어 구름다리가 연결되면 6시간 코스의 등산로가 마련된다.

군이 계획중인 구름다리는 높이 63m에 길이가 무려 270m로 국내 최

장 길이다. 지난해 설치한 진안 구름산 구름다리는 100m, 금년에 설치된 파주 감악산 출렁다리는 150m로 무려 120m가 더 길다. 특히 바닥판을 일부 구간 강화유리로 만들어 걸으면서 아래 전망을 볼 수 있는 스틸 만점의 관광자원으로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이번 뷰라인 조성사업으로 이미 정상에서 바라본 섬진강과 적성들의 아름다운 풍광으로 꾸준히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체계산의 관광력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 산업관광 프로그램 '인기몰이'

독일대학교 FAU 부산캠퍼스 생명공학 20여명 방문 등

전국 최초로 순창군 산업관광 육성조례를 제정해 지난 3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순창군 산업관광 프로그램'이 꾸준히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주로 생명·농식품관련 대학생들이 방문하여 교육과 함께 현장을 체험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산업현장을 단순한 견학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교육과 현장학습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8일에도 외국 유학생을 포함한 독일대학교 FAU(프리드리히-알렉산더 대학교)부산캠퍼스 생명공학 대학원생 20여명이 방문하여 장류사업소 고풍이분야 전문가인 김현영 박사로부터 장류산업과 미생물 산업의 관계에 대한 학술적 설명을 듣고 순창메주공장, 발효미생물 산업진흥원, 발효소스토굴 등을 견학하여 그동안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산업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배우는 기

회를 가졌다. 순창군이 말하는 순창군 산업관광의 매력은 고추장 민속마을의 과거와, 생산 공장을 통한 현재, 그리고 순창의 장류산업의 다가올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것이며, 단순한 견학에서 벗어나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경험 등을 청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순창군은 올해 처음 시도한 산업관광프로그램이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으며, 금년에만 3,000명이 넘는 유료관광객이 방문하여 순창군 관광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진로체험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 내년에는 중·고등학생들의 수학여행 견학지, 진로 체험 등의 현장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약과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장류사업소 전화 063-650-5426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N치즈축제 개최 일정 확정

내년 10월 6일부터 9일까지

'제3회 임실N치즈축제'가 오는 2017년 10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임실N치즈축제제전위원회(위원장 조기춘)는 지난 6일 제전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즈테마파크 방문자 센터에서 '임실N치즈축제제전위원회 총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위원회는 지난 10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개최된 '제2회 임실N치즈축제'의 성공을 자축하는 한편 성과 및 개선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내년도 축제 일정을 10일

간의 긴 징검다리 추석 연휴기간을 고려해 금년과 동일한 날짜로 최종 확정했다.

조기춘 제전위원장은 "내년에 개최되는 '제3회 임실N치즈축제'는 30만 이상의 관광객 방문을 목표로 오감을 만족시키는 대한민국 최고의 축제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월에 개최된 '제2회 임실N치즈축제'는 관광객 만족도, 타 축제와 차별성, 지속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개최되어 21만명의 관광객이 몰려 약 200억원의 경제파급 효과가 발생했다. /임실=진흥영 기자

남원경찰 다목적 교통경찰 활동 실시

남원경찰서(서장 황종택) 교통관리과는 주간근무 중 주요 도로주변에서 무면허 운전 단속 등을 위한 '다목적 교통경찰 활동'을 실시했다.

음주 단속 및 범죄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사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가시적이고 공세적인 근무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오상섭 경비교통과장은 "주간 시간 단속을 피해 면허 없이 운전하는 행위 및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다목적 교통 목적인 활동을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 삼계면발전협의회 개최

임실군은 농림부가 주관하는 '2018년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삼계면발전협의회(공동위원장 심민, 장성화)'를 개최했다.

7일 군청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는 심민 위원장을 비롯해 추진위원 및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해 신규 공모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삼계면의 사업 타당성을 사전 검토하는 등 사업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군은 그동안 추진위원회와 주민들이 수차례 머리를 맞대고 작성한 계획서에 이번 협의회를 통해 개선된 의견을 보완하고 확정해 농림부 사업에 공모할 방침이다.

심민 위원장은 "이번 협의회에서 도출된 사업들을 적극 검토하고 반영해 신규 사업에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살고 싶은 임실건설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2015년 임실읍과 청송면에 이어 오는 2017년 강진면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선정돼 19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농촌의 중심지인 읍면 소재지에 생활편의과 문화, 복지시설 등을 강화하고 배후마을을 연결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임실=진흥영 기자

고창군 AI 방역대책회의 개최

지난달 16일 해남에서 처음 발생한 고병원성 AI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지난날 21일 전북 김제시를 시작으로 이날 1일 장성군, 4일 정읍시까지 발생하면서 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고창군이 청정지역 사수에 사활을 걸고 철저한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8일 김상호 부군수 주재로 재난상황실에서 생산자단체 회장(육계협회, 채단인협회, 오리협회)과 관계 공무원, 유관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AI 차단방역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대책회의는 AI 유입방지를 위해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농가·철새도래지의 방역뿐만 아니라 축산농가에 차단방역 협조와 교육이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 철저한 방역 태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마련됐다.

대책회의에서는 철새도래지인 동립 저수지 반경 10km내의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특별방역 대책마련과 축산농가에 유관기관 단체에 협조 사항을 전달하고 철저방역에 동참하는 등의 의견을 나눴다.

김상호 부군수는 "앞으로도 생산자단체와 축산농가에 AI 방역조치사항을 전파하며 적극적인 차단방역으로 AI 유입 방지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한편 군은 AI 차단방역을 위해 지난 10월 1일부터 방역 대책상황실을 운영(평일 오전 8시~ 오후 10시, 휴일 오전 10시~ 오후 6시)하고 있으며, AI 특별방역 대책 중점 추진을 위해 거점소독장소 4개소(아산, 대산, 흥덕, 고창부안축협생축장)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제이앤제이그래픽

간판, 현수막, 표찰, 현황판, 실사출력전문,
안전용품, 가구, 커튼, 차량랩핑

Tel. 063-633-1201

Fax. 063-633-1203

e-mail . 6331201@hanmail.net